

교회 소식

1. 환영합니다

-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-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. 그래서 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주시면, 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.

2. 11월은 <가정예배> 드리는 달입니다.

- 실천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 <가정예배>드리도록 합니다.

3. 기타 안내

- ① 10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실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오늘 오후 예배 후 청년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(주사랑공동체).
- ③ 11월 필독서를 판매합니다. 『신약의 뒷골목 풍경』(차정식, 예책출판사) 책값은 1만원입니다. 현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
- ④ 11-12월 수요일예배는 기도회 중심으로 진행하며, <사도행전>을 강해합니다.
- ⑤ 11월12일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
(백주현, 장우연 / 명성재, 유준명, 이원준, 이은수, 조정진)

온라인
현금

- ☐ 일반현금 : 국민은행 387-21-0060-940 (예금주/조호진)
 신한은행 308-12-390429 (예금주/조호진)
 우리은행 1005-901-708982 (예금주/언약교회)
 ☐ 예배당매입현금 : 국민은행 830502-04-176405 (예금주/조호진)

봉사
안내

	이번 주(11/1)	다음 주(11/8)
설거지	함영훈, 황상진, 백주현	이동균, 김성현, 김광수
오후통독	이혜진(요한계시록 11-12장)	유일(요한계시록 13-14장)

대한예수교
장로회

언약교회

COVENANT COMMUNITY CHURCH

섬기는이 목사-조호진, 임종훈 / 전도사-전진영, 노진호
 서울 관악구 인현동 181-6 현대아파트상가 (3층)
 ☎ 02-875-7760 http://www.unyak.o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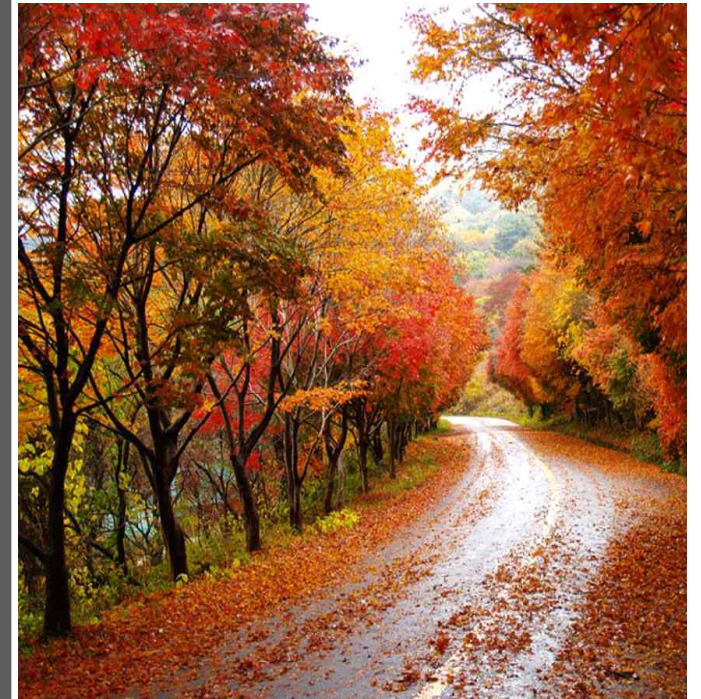
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

온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"제자삼는 제자"가 되는 교회

http://www.unyak.org

제17-43호

2015년 11월 1일



(단풍길)

주일	유 . 초등부	오후 1시30분
	중 . 고등부	오전9시30분 //오후1시30분
	주일 예배	오전 11시 // 오후1시30분
주중	새벽 예배	오전 5시30분 (월~금)
	수요 예배	저녁 8시

주일 예배 순서

인도 : 조호진 목사

-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
- 사도신경 일어서서
-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
- 찬양 찬송가 235장 "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" 다함께
- 대표기도 이다솜 자매
- 성경 봉독 베드로후서 3장 1-10절 말씀 조수연 자매
- 말씀 『오래 참으사』 조호진 목사
- 결단의 기도 다함께
- 성도의 교제 다함께
- 광고 인도자
- 찬양 "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" 일어서서
- 축도 조호진 목사

- ▣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
- ▣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.

예배 위원		다음 주(11/8)	2주후(11/15)
	대표 기도		이가원 형제
성경 봉독		최현우 자매	전계현 자매

성경 본문 (개역개정판-베드로후서 3장 1-10절 말씀)

- 01 사랑하는 자들아
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
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
- 0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
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
기억하게 하려 하노라
- 03 먼저 이것을 알지니
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
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04 이르되
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?
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
- 0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
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
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
- 0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
- 0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
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
- 08 사랑하는 자들아
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
- 0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
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
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
-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
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
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